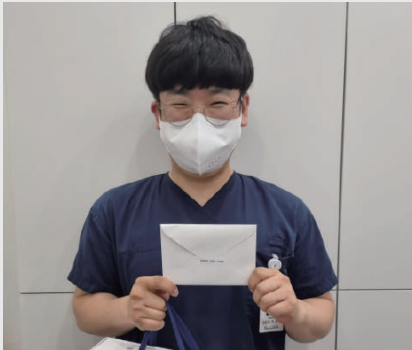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15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3.07

미션
MISSION

사랑으로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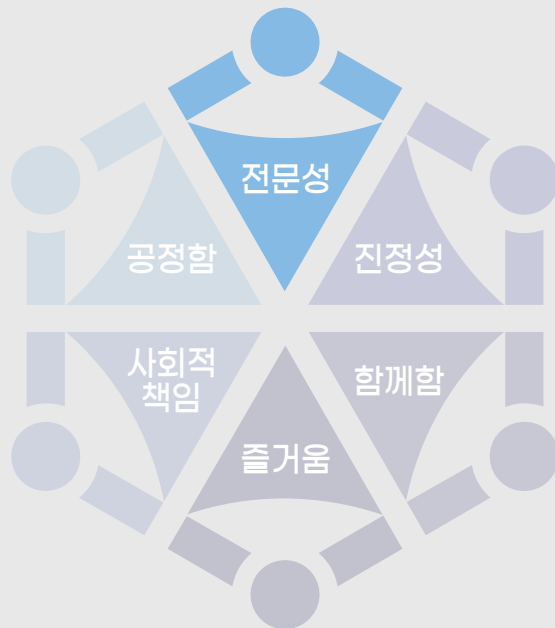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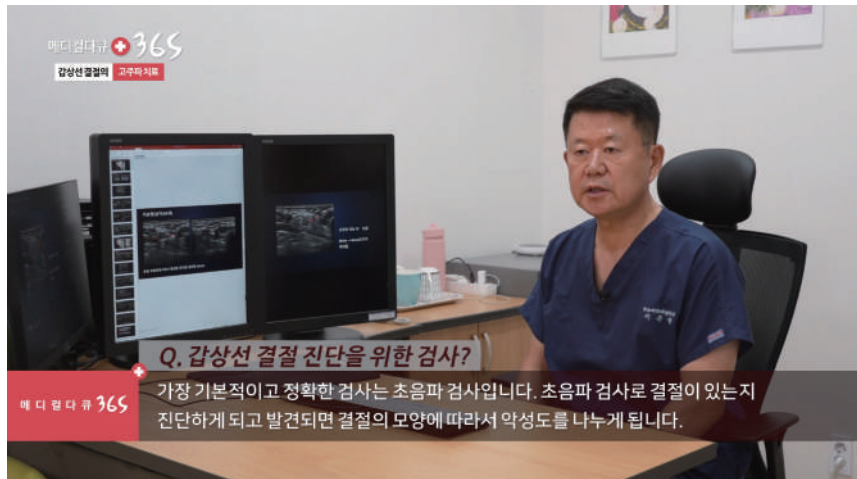


부산MBC
메디컬+다큐365

부산MBC 메디컬다큐365 갑상선센터 이준형원장님 방송 (07.24)

7/24일 오후 6시 30분에 '갑상선결절의 고주파 치료'라는 내용으로 우리 병원 갑상선센터 및 이준형원장님 출연이 방송되었습니다.

본방은 끝났으나 재방일정이 남아서 우리병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 못했으며, 8월 중에 방송 원본을 유튜브에 올려 못보신분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백선미 병원장님 제7회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심화 Hands-on 에탄올절제술에 대한 강의와 실습 (07.08)

제 목 : The 7th Intensive Hands-on Course for Thyroid Radiologists
제7회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심화 Hands-on 교육

일 시 : 2023년 7월 8일(토) 9:00 - 16:10

대 상 : 갑상선에 관심이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각 팀 선착순 20명 (오전 20명, 오후 20명)으로 제한

이번 제7회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심화 Hands-on 교육에서는 시술 전 꼭 알아야 하는 지식을 생생하게 전달할수 있도록 오프라인 강의와 실습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기본반은- 오전 강의 후 US-guided FNA 와 CNB (core needle biopsy) 진단, 심화반은 오후 강의후 nol Ablation, RF ablation 등의 치료 중재술을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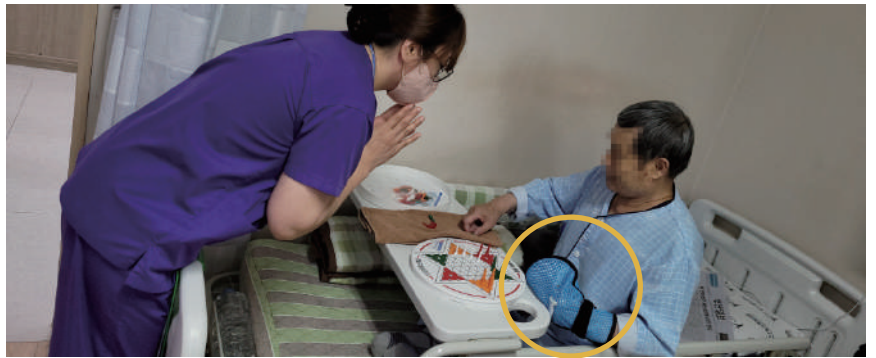
‘뇌재활 상지 UP’

김연희원장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뇌재활상지 UP' TF에는 진료부 김인혜과장, 치료1팀 신지영파트장, 치료2팀 김종태부팀장, 간호팀 배연정부팀장이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뇌재활 상지 UP’은?

뇌졸중·뇌손상 후 피질 척수로(Corticospinal tract)의 손상이 부분적일 경우 집중적인 회복기 재활치료에 의해 기능적인 사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원 시부터 참여자의 뇌 영상과 임상증상을 확인하여 운동 회복의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를 선별하고, 재활팀의 집중적인 관심과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뇌졸중 후 견관절 아탈구 및 복합통증증후군은 흔한 합병증으로 편마비환자의 34~84%에서 발병 2주~6개월 사이 동반되는데, 이는 예방 가능한 합병증으로 뇌졸중 초기부터 예방, 조기발견, 치료가 필요합니다



▲ 7/12일 회진 시 병실에서 억제유도 운동치료(CIMT : constraint induced movement training)를 하고 있는 참여자(503호 공○○님) 모습입니다.



▲ 2주 후 7/25일 모습입니다. 공○○님의 경우 건축(정상쪽)에 장갑을 끼워 사용을 억제하고, 환측(마비쪽) 사용을 훈련하시는데, 이날 회진시 모습에서는 좌식자전거를 타고 계셨고, 환측(마비쪽) 손으로도 모자를 쓰며,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나행리더스미팅 (07.11)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리더들이 모인 '7월 나행리더스미팅'이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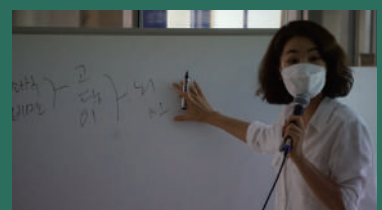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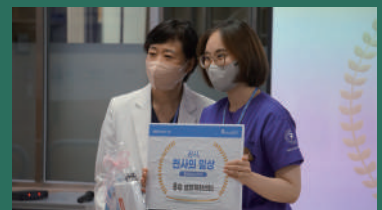
'제3회 새로그침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 발표와 시상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그침 공식 위원장인 노현욱 파트장님이 3개월간 있었던 제3회 새로그침에 대한 브리핑을 맡아주셨고, 남자부 1위에는 재활치료1팀 이재관 선생님, 여자부 1위에는 재활치료1팀 김태영 선생님이 수상하셨습니다.

이어서 핵심습관에 대한 시상식을 조직문화성장실 김경희 지원실장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4개 부문에서 핵심습관 시상식을 발표해주셨습니다.

백선미 병원장님께서 새로그침에 대한 본인의 다짐과 특별한 공약을 말씀해주셨고, 이어서 진행할 특강과 안하나 교수님의 인연과 이력을 언급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걷기만 하면 건강해지는가? : 올바른 걷기와 건강관리를 위한 특별한 강의'라는 주제로 동서대학교 시니어운동처방학과 교수로 부임중인 안하나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휠체어스쿨 3,4차시 (07.04 / 07.18)



재활코치팀에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휠체어 사용방법 안내를 위해 휠체어 스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3회차와 4회차가 진행되었는데요. 4일 3회차에서는 기존 참여자분들을 대상으로 휠리를 반복하는 연습을 시행했고, 18일 4회차에서는 기존 참여자분들의 마지막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배웠던 휠체어 스킬들을 활용하여 팀게임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8월부터는 신규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초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와 함께 하는 장애관련 이론 및 체험교육을 통해
참여자의 긍정적 장애수용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추후 센터의 교육 강사(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대상

입·퇴원 참여자

장소

원내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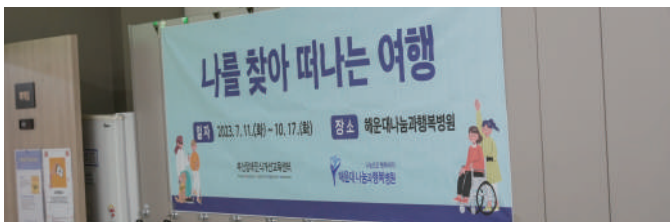
2023년 7월 11일 ~ 2023년 10월 17일

격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 오후 8시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와 함께 하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07.11)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와 함께하는 장애관련 이론 및 체험교육을 통해 참여자의 긍정적 장애수용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추후 센터의 교육 강사(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1회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은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소개를 시작으로 프로그램 안내, 참여자분들의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고, 강사 활동 이야기와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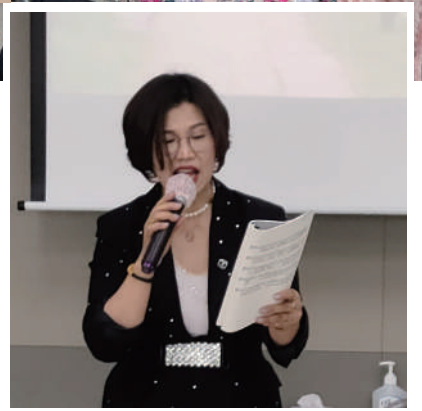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 김미애
강사님의 웃음 가득한 노래교실,
색소폰 연주자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이자
레크레이션 시간, 참여자, 보호자,
간병사, 직원이 함께 웃음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목청껏
노래하고 싶었던 마음을 맘껏 펼친
신명나는 날이었습니다.



웃음 레크레이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 김미애 강사 (07.01)

슬기로운 재활생활



장애수용을 넘어 일상속으로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조은호 강사 (07.08)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조은호강사님의 장애 후 강사로의
삶을 시작한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으로서의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 본인의 장애 수용
과정을 참여자에게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0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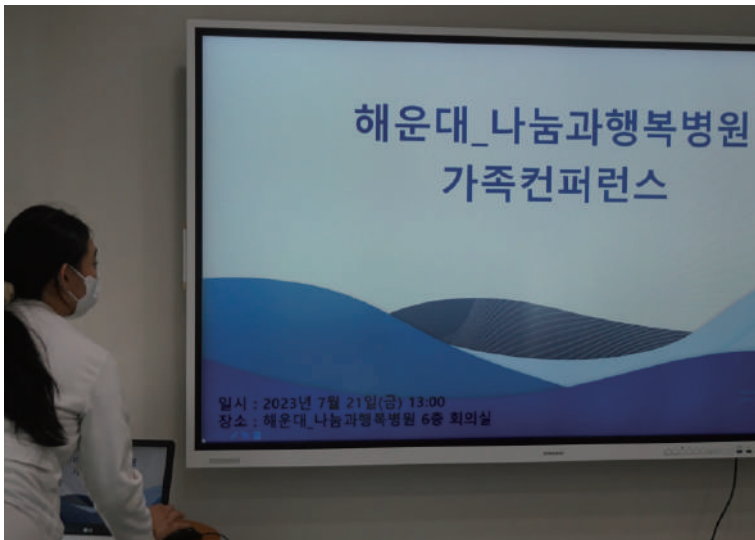
가족 프로그램은 가족의
긍정적 마인드 강화와
가족이 함께 모여
질병에 대한 이해 및
서로를 인정하는 과정으로
가족 지지체계를 돕고자
시작하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가족의 회복탄력성을
통해 힘든 병원 생활에서
활력소를 얻고 참여자와
가족의 미래 계획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족컨퍼런스 (07.21)

본원에서 참여자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가족컨퍼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자의 부모님과 담당 주치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인지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재활코치팀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가족컨퍼런스를 실시하게 된 개요와 의미설명을 시작으로 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참여자 치료현황과 앞으로 3개월간 치료계획에 대해 가족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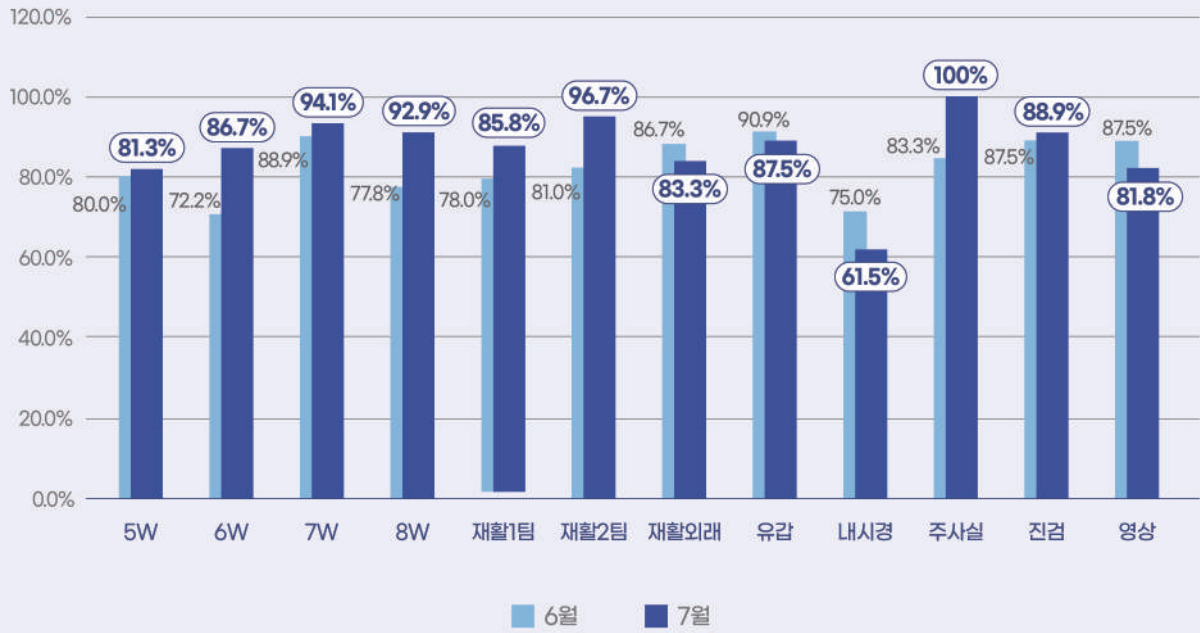


또한 참여자 가족의 의견을 수용하며 앞으로의 치료계획을 조율함으로써 준비된 퇴원을 의논하고 협의하여 목표를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OO님과 가족 모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어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컨퍼런스를 마쳤습니다.

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은 앞으로도 가족컨퍼런스를 통해 함께 소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여자와 참여자 가족의 사회복귀를 응원합니다.



7월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



‘주사실’ 이달의 손위생 우수부서 (0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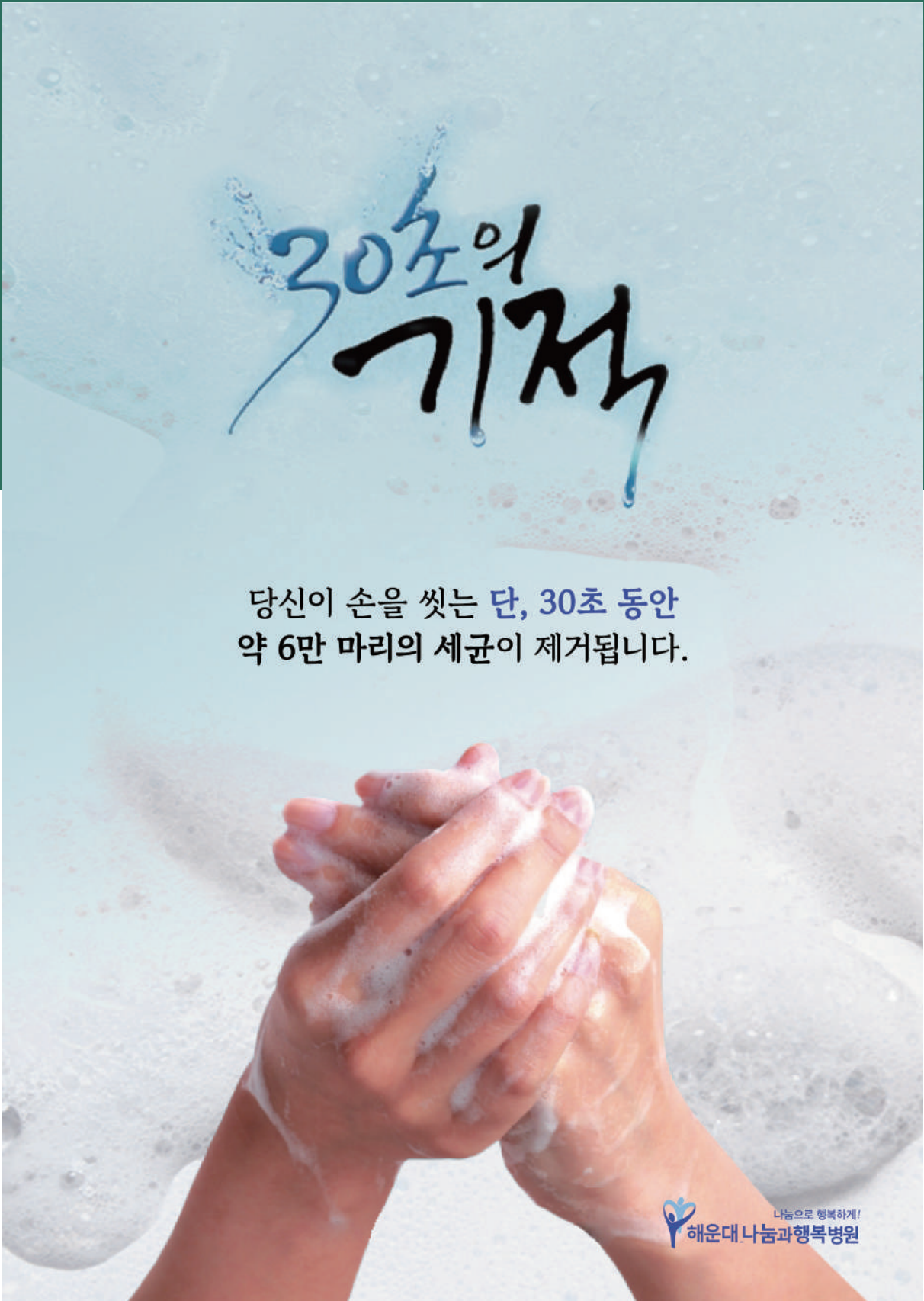
7월 손위생수행률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주사실이 100%로 1등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참여자분과 고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손위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젠손 손위생을 했는지 물어봐주십시오~ 감염예방을 위한 손위생은 항상 준비되어있습니다!



손씻기를 '30초의 기적'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30초 후 여러분들은 아이의 얼굴을 만져도 괜찮습니다. 안심하고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또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도 줄어듭니다.
(손을 씻고 타월로 닦고 완전히 건조까지는 40-60초 소요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손씻기 6단계 방법인 '손바닥→손등→손깍지→손가락→엄지손가락→손톱'순서를 준수하여 올바른 손씻기를 통해 감염예방에 앞장서는 해나행 직원이 되어주세요~^_^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국립재활원에서 본원 견학 (07.06)

장애인을 건강하게, 장애인을 행복하게, 재활전문 국립중앙기관인 '국립재활원'에서 임직원 여섯 분께서 저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견학의 목적은 재활치료시스템과 함께 사회복지관련 시스템, 재활코치 시스템을 둘러보고 싶어서, 관련된 사회복지사 3명, 물리치료사 2명, 작업치료사 1명의 직원 분께서 오셨습니다.

재활코치팀 성민규 팀장님이 가이드 역할을 책임지며 견학하였고, 라운딩 후 회의실에 다시 모여 방문재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날의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해냄복지회 업무협약체결 (07.21)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사단법인 해냄복지회에서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 업무협약을 위해 오셨습니다. (사)해냄복지회 김재익 이사장님을 포함 총 네 분이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멀리 부산 해운대까지 견학을 오게 된 이유는, 해냄복지회에서는 중도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제안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환지원사업 발전을 위해 저희 병원을 찾아주셨습니다.



기차 연착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없어서 라운딩은 하지 못하고, 업무협약식과 함께 1시간 가량 간담회를 진행하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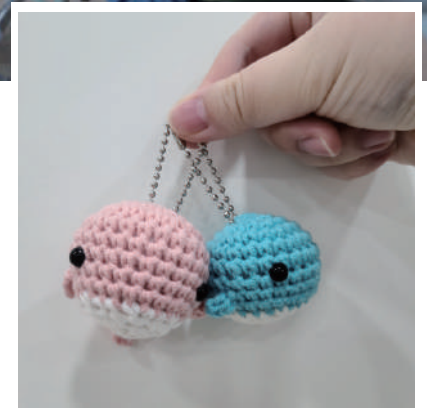


털뭉치 공방은 코바늘을 이용하여 인형을 제작함으로써 참여자의 소근육 및 인지능력을 자극하여 참여자의 치매예방에 도움을 주고 손을 활용한 취미활동을 통해 병원생활의 활력소가 되고자 시작하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달에는 '돌고래 키링 만들기'가 진행되었고, 각자의 색이 담긴 돌고래 인형을 직접 뜨며 몸과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뜨개 프로그램, 털뭉치 공방 '돌고래 키링 만들기' (07.26)



함께하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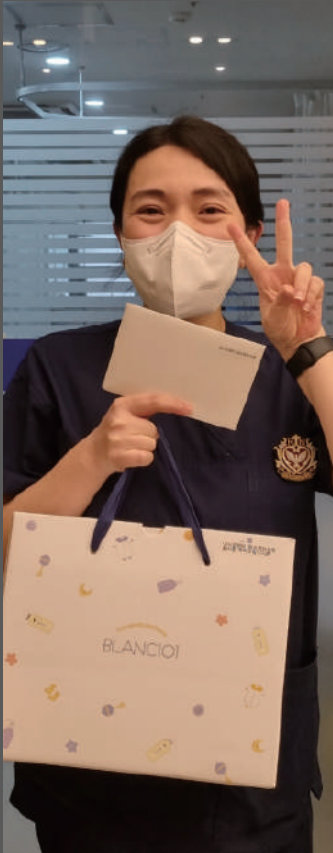
일상재활센터 그룹치료 프로그램 '마크라메 오너먼트 도어벨 만들기' (07.26)

프로그램 시작 전 아이스브레이킹 너도나도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름 주제로 각자 생각하는 여름 단어를 적고 공유하며 여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나만의 도어벨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급 마크라메 실의 고유 질감을 손끝으로 직접 느끼는 활동을 통해 소근육을 자극하고 몸과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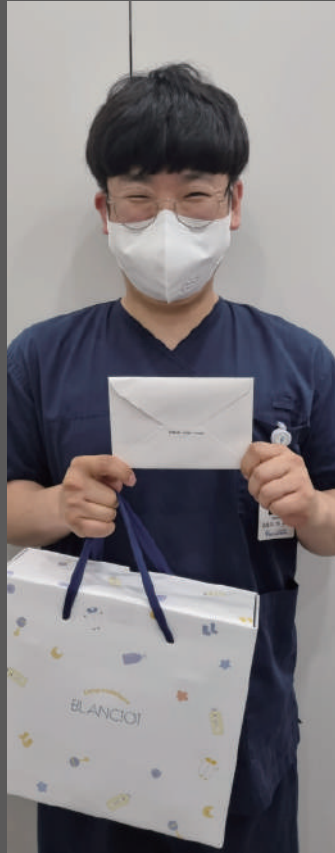


출산예정 직원에게 드리는 출산휴가 선물

소화기내시경센터
임소영 파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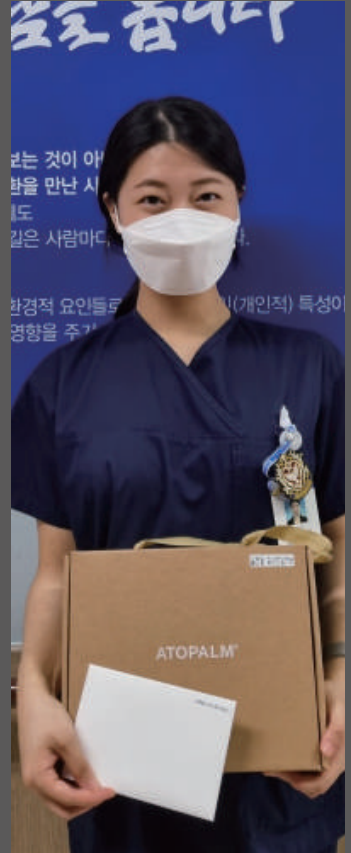
재활치료2팀
진경수 파트장



재활치료2팀
김태연 주무



간호팀 8층 생활재활센터
박소윤 주무



이벤트 프로그램 '바다 캔들 홀더 만들기' (07.27)

이번 달은 다가오는 여름철 조금이나마 바다의 향기를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바다 캔들 홀더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여름하면 떠오르는 빙고 게임을 통해 여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참여자, 보호자가 함께 모래와 조개껍질을 직접 만지고 디자인하며 캔들을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향기를 첨부해 조금이나마 여름휴가의 기분을 전환하고 힐링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7월의 신규입사자



간호팀(7W) 허다슬 간호사



영양팀 김옥주 조리원



재활치료2팀 윤다은 언어치료사



영양팀 성채원 조리원



간호팀(8W) 정혜린 간호사

삶의 층계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무언가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만 같은

어떤 기대와 호기심
층계를 마주치면 문득 오르고 싶어진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생각하며 오를 수 있는 돌계단

층계는 만남과 기쁨과 기다림의 설레임이
가득한 장소, 때로는 이별의 슬픔이 깔린 장소

지금껏 걸어온 삶의 길 삶의 층계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별했을까

_이해인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주거환경개선사업 일상속으로 프로젝트 가정방문 (0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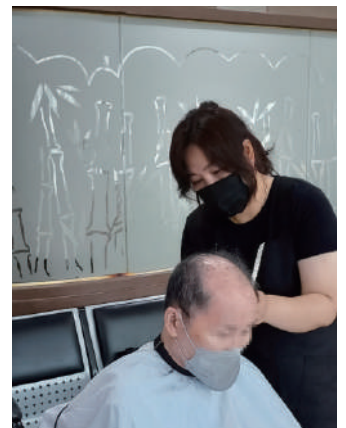
이번 달에는 김연희 명예원장님과 재활치료팀, 사회사업팀,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과 함께 김OO님의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환경을 점검하였습니다. 참여자는 현재 보조기기를 이용하여 보호자 도움 하에 이동이 가능하신 분으로 자택에서 안전하게 이동 및 생활할 수 있도록 자택 내 이동노선을 파악하였으며 침실, 화장실 입구, 화장실 내부에 이르기까지 곳곳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평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회의를 통해 김OO 참여자의 주거환경개선 계획과 목표를 세웠으며 참여자와 보호자도 함께하여 개선될 환경에 기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퇴원 전 공사 완료 예정으로, 직원들과 함께 주변 환경을 하나씩 점검해 나가고 계시는 김OO님의 '준비된 퇴원'을 응원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이미용프로그램 (07.18 / 07.28)



사회사업팀에서는 병원 생활 동안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달 이미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자분들을 위해 약속된 시간에 방문해주심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재능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에는 총 80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일상재활센터 (낮병동)

출석왕 자립왕 수상 (07.14)



일상재활센터에서는 '나 스스로 한다'라는 자립활동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성취감을 느끼고, 가정과 사회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사람들에게 축하받으며 지속적으로 역할을 찾고 의미와 목적이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석왕 & 자립왕'을 매월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6월 우수 출석왕에는 곽〇〇님, 주〇〇님이 선정되었고, 우수 자립왕에는 남〇〇님, 정〇〇님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계속 파이팅입니다!!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TF
3대꿀격왕
수여
(07.18)



재활 2팀 연하파트에서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연하파트에서 올해부터 실시하게 된 TF는 참여자분들이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있을 정도로 삼킴 기능이 향상되어 연하치료를 종결하게된 분들을 기념하고자 "꿀격왕"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상장을 수여하고 연하치료실 명예의 전당에 명패를 올리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3대 꿀격왕에 705호 채○○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담당선생님들과 병실에 직접 찾아가 축하노래와 사진촬영 그리고 소감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참여자분께서도 너무 좋아하시며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영양팀장의 말,말,말

카카오워크에서 전한 글입니다. (07.21)

‘엄마의 손맛’

‘엄마의 손맛’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따스함이 느껴지는 순한 맛 가득한 손맛이신가요?

아님, 찔지게 등짝을 후려갈겨 바른길로 인도하는 등짝 스매싱의 매운 맛 가득한 손맛이신가요?

저는 당연히 전자의 손맛인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후자의 손맛을 더 강렬하게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엄마의 손맛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양팀은 중복을 맞아 그리 특별하지는 않지만, 시간과 정성으로 완성된다는 전복죽을 준비하였습니다.

뜨거운 열기 앞에서 오전 내내 쉬지 않고 휘휘 저어야 완성할 수 있는 전복죽을 위해,

시린 팔목에 파스를 둘둘 감고 더위에 맞서 손맛을 녹여내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와

우리 해나행 가족이 기력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듬뿍 담았습니다.

(마음과 다르게 엄마의 손맛이 음식의 맛을 전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엄마가 음식을 다 잘 하지는 못한다는...)

전복죽의 성공과 더불어 이 의지와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며, 남은 장마가 무사히 지나가길,

그리고 다가올 한여름의 무더위도 굳건히 잘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초딩 엄마의 자기주도 놀이

초딩 빨간 띠 따던 날, 엄마의 자기주도 놀이
익숙한 것을 낯선 것으로 바꾸는 행위

- 이 이야기는 5년 전 큰아들 초1때 이야기입니다. -

바깥에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빨라지는 발자국 소리에서 녀석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현관문 도어락 덮개가 위로 올라가고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8자리가 이어진다. '띠리릭~' 알림과 함께 문이 열린다. 아이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신발을 벗자마자 중문을 열고 들어선다. 겨울의 끝자락에 입은 얇은 패딩을 서둘러 벗었고 양손을 허리춤에 올려놓으며 멋지게 포즈를 취한다. 허리춤에는 빨간색 띠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날은 아이가 태권도 승급심사에서 합격해 파란 띠에서 빨간 띠로 바뀌 단 날이다. 아이는 이 기쁨을 빨리 엄마에게 알리고 싶었던 모양이다. 이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눈으로 주위를 스케치한다. 천진난만한 얼굴을 하고서.

눈은 손보다 빠르다. 화장실문에 부착된 무언가를 발견하고 바로 그곳으로 향한다. 흰색 도화지가 덮여있다. 아들이 그 도화지를 벗겨내자 9개의 포스트잇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빨간 띠로 승급한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서프라이즈 선물이다. 아홉 개의 메모지에는 각기 다른 미션이 써져 있다. 칭찬스티커 2개, 문방구 2천원 이용권, 편의점 2천원 사용권, 피자(김○○이 쏜다), 통닭(김○○이 쏜다), 칼국수+김밥+만두, 과자파티, 고속도로 1회 이용권(경남만), 영화+팝콘 이 적혀져있다. 그리 무겁지 않으면서도 아이가 좋아하는 거랑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적혀져 있다. 아이는 9개의 포스트잇을 빠르게 스케치하더니 세상 기쁜 표정으로 엄마를 향해 미소를 짓는다. 무엇을 고를지 고민하는 척 하더니 이내 고속도로 1회 이용권(경남만)을 선택한다. 엄마에게 팔을 쪽 뻗으며 제시하며 3초간 포즈를 취한 뒤 살짝 궁금한 표정으로 물어본다.

“근데 경남이 어디까지야?”

엄마는 아이가 이 종이를 뽑으리라 예상했었다. 우리가족은 주말마다 부산을 포함한 경남으로 당일치기 나들이를 가고 있었고, 아이의 관심사는 부산지하철 노선과 함께 고속도로 지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라 경남, 경북, 전남, 전북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잘 자리 잡지는 않았다. 엄마의 설명이 이어지자 아이는 순간 고민하는 듯 하더니 그럼 다시 하겠다며 방금 뽑은 메모지를 문에 붙인다. 다시 9개가 된 포스트잇 중에서 고민하더니 이내 하나를 낚아채며 엄마에게 보여준다. ‘피자 1판(김○○이 쏜다)’ 김○○에는 아이의 이름이

적혀있다. 녀석은 그것까지 보지는 못했는지, 아님 피자라는 단어만 눈에 들어왔는지 해맑은 표정이다. 엄마가 신난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한다.

“피자 1판, 김○○이 쏜다!”

“잉? 왜 내가 쏜 건데?”

“네가 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는 거야~”

엄마는 문 앞에 들어서서 순간부터 마지막 대화까지 폰으로 녹화하여 아빠에게 보냈고, 아빠는 이 영상을 편집해서 자막과 함께 SNS에 남겨서 이날을 추억했다. 초등1학년이라 돈에 대한 경제적 체계가 성립되지 않았을 터이다. 용돈을 받으면 무조건 저금통에 넣어 두는 게 다였다. 아직 저학년이라 친구들과 분식점이나 편의점 여행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돈이라는 건 어른들이 쓰는 것이고 아이들은 받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이에게 엄마는 즐거운 이벤트를 제공했다.

이 작은 놀이에서는 아이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아이가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줬으며, 가족을 위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마저 제공하였다. 가족이 함께 축하하고, 아이가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3종 세트를 갖춘 이벤트였다. 물론 이날 저녁 유치원에 갔다 온 동생과 함께 우리 네 가족은 맛있는 피자를 먹었고, 아이에게 ‘덕분에’라는 말과 함께 잘 먹었다는 표현을 잊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했다.

로제 카이와 저서 「놀이와 인간」이라는 책에는 네 종류의 놀이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바둑, 장기와 같이 경쟁하는 놀이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 우월성을 나타내고 싶어 하고, 윗놀이나 주사위놀이를 통해 운명을 시험하고, 소꿉장난, 연극놀이를 통해 역할을 대행하며, 그네타기와 회전목마처럼 아찔함을 경험한다. 이날 9개의 포스트잇중 하나를 선택하는 작은 놀이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 아이의 사고는 이 작은 놀이를 통해 익숙한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했으리라 생각해본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